<2020년 2월 23일 주일 말씀> 요약

☞ 교단의 공식 말씀 문서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만 해하라

본문: 요한계시록 9장 4~6절

◆ 기다렸던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과 같은 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 6~11장 읽고 오라고 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으면 다 연결되니, 평소에 다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나? **전에 있던 것을 미래에 하시고, 미래에 할 것을 지금 한다고 하시니,** 전의 것을 많이 읽으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 계시록 읽으면 좋겠어요.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합니다.
◆ 선생님이 잘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입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순간 그때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해요. 그 얘기만 하고 끝나면 육적 설교로 끝나고,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면 영적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이러하다." 말씀하시면 쏙 들어왔어요.
◆ 왼쪽 눈 안 보이면 답답하지? 오른쪽 눈도 안 보이면 답답해. 똑같다. **하나님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해요.**
이 말씀을 지구상의 모든 자에게 해야 하는데, 말귀를 빨리 알아듣고,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특별히 해줍니다. 시대마다 메시아, 중심인물, 선지자에게 전하면 그들이 외칩니다. 이를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령님도 속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중계합니다.
◆ 하나님은 한 번 행하시면 기어이 행하시고, 가루가 되도록 하십니다. 극과 극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계속 새로운 말씀을 하고, 반복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국은 자료가 없으니 했던 것을 반복하고,
자기 생활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것을 뭐하러 봅니까.
자기 생활 보고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수준이 만 배도 넘게 훨씬 높아요.
그들이 TV에 나오면 나는 '아기들 나왔다.' 고 딱 돌려버려요.
영화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 본문 말씀 통해 이 시대를 꼭 깨닫기를 바라고,
지혜의 문, 생각의 문을 열어줍니다. 모두 깨닫고 행하길 바라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사도 요한입니다. 기록 위치는 밧모 섬.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 흩어지고, 어디 있는지 서로 알지 못하고, 전화, 방송도 없는 때이니, 신령한 사람들만 서로 느낌으로 알던 때입니다. 예수님 때는 다 풀어주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나, 죽었나 안 죽었나 몰라 답답하고, 눈에 띄면 죽는 때였어요.
요한은 밧모 섬에서 환난을 피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복음 전하고 피하고, 복음 전하고 피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10년 동안 환난 겪었고, 확대하면 4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 숨어 기도하며 환난기를 보내는 요한은 깊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영계에 가서 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나는 전능자니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것을 써서 각 교회들에게 보내줘라." 하셨어요. 일곱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같이 영으로 계속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육신이 없으니, 육신 있는 제자를 바로 택해서 말씀하셨어요.
◆ 그 당세 현재 일, 미래 일, 과거 일까지 계시해 준 것입니다.
계시를 풀면, 과거 일, 당세 현재 일, 미래의 것도 나왔습니다.
수천 년 후에 될 것, 예수님 재림 후의 일까지 나왔어요.
모든 종교인이 이것을 풀려고 했지만, 주인이 아니라 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자에게만 풀어주게 해서, 그 사명을 실행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는 안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말씀대로 정녕코 시대마다 이뤄졌습니다. 그 시대마다 사명자에게 불같이 외쳐주게 했습니다.
시대가 그러함을 믿고 확실히 시대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의 육신을 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 신령하게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주어 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가실 때는 예수님이 총 책임지고 다 하시니, 제자들이 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 환난 때, 내가 설교할 때 조은 목사가 말하길,
선생님이 웃으면서 설교하시면 환난을 웃으면서 이긴다고 더 힘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것을 보고, '선생님, 아주 편하다.' 하는 사람은 쓸개가 없고, **'저런 환난에서도 웃으면서 하신다, 우리도 말씀 듣고 환난을 이기자.'**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 계시록 6~11장을 읽으면 7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재앙을 내릴 때 천사들이 하고, 메시아가 출연한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메시아가 직접 합니다.
말씀에 축복의 잔, 진노의 잔, 재앙의 잔이 있어요.
전쟁, 가뭄, 홍수, 태풍, 지진 등이 일어나는데,
한 때 두 때 반 때에 따라 정한 때까지 합니다.
어떤 것은 40일, 어떤 것은 40년, 어떤 것은 3년 6개월, 어떤 것은 4000년, 그러니 딱 맞춰 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재앙을 정한 때까지 합니다. 축복도 정한 때까지 받습니다.
축복은 대개 오래갑니다. 영원까지 가는 축복도 있습니다.

◆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해 받은 사람은 말씀 안 들은 사람이에요.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안 지킨 사람들, 제대로 못 듣고, 제대로 못 지킨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하나님의 인(도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죠. "해 돋는 데부터 인을 친다." 예수님은 서아시아에서부터 인을 쳤죠. 하나님의 인은, 선지자 때는 선지자, 메시아 때는 메시아가 한 말씀이 인입니다.

◆ 인 쳤다는 얘기는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해 받는 기간이 끝났고, 나갈 때가 됐는데도 애굽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려라. 표시해라."인 맞았다는 것은 표시한 것입니다.

◆ 영계에서도 천사들이 이마에 표시하고 다녀요. 기도할 때 많이 봤어요. **이마에 표시한 사람들은 마귀들이 손을 안 대요.**
선지자들이 보니, 먹통을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표시하고, 그들은 해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표시를 합니다. 나는 산에서 기도할 때도, 영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 3주 전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는 표시하셨어요. 중국 코로나로 조심하라고 한 줄 알았는데,
신천지로 인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코로나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고 했죠.
공중에 훅 올라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올라가는 기간입니다. 내려오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 하나님의 인 맞은 자, 말씀으로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기에, 우리가 조심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을 신천지도 다 들었으면 조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다 못 들으니 안타깝다고 했잖아요.

◆ 계시는 여기저기 다 주지 않습니다.
뇌에만 계시를 줍니다. 손, 발, 눈에 주지 않습니다.
"에스겔아, 네 뇌에 불을 보낸다." 뇌에 보냅니다.
머리가 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을 쳐주고 전달됩니다. 중구난방,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들만 복음을 전해서, 우리들은 스스로 조심했어요.

◆ 국가와 보건부에서 조심하라, 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제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자제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인 맞은 자로서 떳떳하게 다니는데, 가장 조심하고,

자기를 완벽하게 만드는 복음을 펴자, 자기 속한 소수의 무리에게 완벽하게 말씀을 가르치자는 색다른 복음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무서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폅니다.
◆ 늘 하나님, 성령님과 대화하고, 의논하고 하니 아무 꺼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바일로 예배드리자고 선포하신 후에,
국가에서 모두 조용하게 집에서 드리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많아지면 세상에서 비판합니다.
이럴수록 깨끗하고 완벽하게 하라는 것을 섭리에서 배워왔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하면 좋지요.
◆ 애굽에 재앙이 하나씩 와서 10가지 재앙이 왔습니다.
중간까지는 죽는 재앙 아니고, 물이 피가 되고, 가뭄 들고, 파리 대드는 재앙만 줬는데,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죽는 재앙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 전에 많은 환경의 재앙을 줘도 안 하니까, 죽음의 재앙으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속 시원하게 깨달아야 해요.
◆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애굽에서 나왔죠. 하나님은 정녕코 행하셨어요. 인 맞지 않은 자들만 재앙 받고, 죽으니,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내보냈죠. 재앙은 인 맞지 않은 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분야별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 하나님은 시대 택한 자에게 해 주면 안 되니, 택한 자는 손대지 마라. **택하지 않은 자, 인 맞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랑하지 않은 자입니다.** 6000년 역사 동안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대 말씀과 뜻을 펴는 자들을 괴롭게 하면, 그들을 재앙으로 치십니다.**
◆ 우리 이 시대를 잘 봐요. 한국은 이스라엘처럼 강대국에 끼어 있죠. 강대국은 권력, 힘, 주권 행세를 하며, 어려움, 공포, 두려움을 주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대국들은 어느 시대 든지 그렇습니다. 북한도 원자폭탄 터트린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지금은 못 하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 숨도 못 쉬어요.
지금 질병 전쟁, 코로나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대 말씀, 인 맞지 않은 자는 해하라. 정녕코 행합니다.
◆ 코로나는 풀, 나무, 물, 땅에 해됨이 없습니다.
이 전의 재앙은 태풍, 지진, 가뭄으로 나무, 풀, 산이 엎어졌죠.
다른 때는 돼지 죽고, 소 죽고, 짐승들 구제역으로 죽었어요. **코로나는 사람만 해합니다.** 코로나로 풀, 나무 하나 죽은 일이 없어요.
코로나는 중국, 일본, 아시아, 유럽 등 극한 재앙이라고 합니다.
◆ 영계를 봐요. 천사들이 너무 바빠요.
지도자로서 이런 것을 보니 빨리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는 말씀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이 주간에 꼭 하라고 하셨어요.
◆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이웃 나라들과 섭리에 된 일들을 봐요. 얼마 전 터널 30중 추돌사고 때도 섭리 목사가 **"천천히 다니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다."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서 천천히 가서 안 부딪히고,** 옆으로 가라는 느낌 받아 옆으로 가서, 바로 뒤에 온 큰 차와 안 부딪혔죠.
천천히 운전하라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인 맞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늘 천천히 다니라고 했어요.
◆ 국제부 초연 목사도 국제부 모임에 통역하러 차 타고 오는데, 얼음이 녹았어도 천천히 가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석막리 오는데 10km로 왔대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휙 돌더래요. 놀라서 보니, 도로 바닥이 얼었더래요. 그래서 뒤에 오는 자들에게 전화해 천천히 오라고 해서 다들 천천히 왔대요. 그때 20km로만 운전했어도 난간 없으니 떨어져 사고 났죠. 10km로 운전해서 안 다쳤어요.
◆ 한 해군이 제주에 근무하러 가는데 큰 배가 고장 나서 진해에 내렸대요. 제주도 안 가고 휴가 신청해서 집에 와 있는데, 같이 제주 가기로 했던 해군이 대구 신천지 교인이었고, 감염되었다고 뉴스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시대 말씀 들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다 때려주는 것을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 맞은 자는 해하지 못하게 해 주셨습니다.**
◆ 광주의 관절 박사인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골 환

자가 병원 다니는 친구들과 싸워서 한 달째 안 오고, 광주의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광주 첫 코로나 확진자로 뉴스에 나왔대요.

◆ 이뿐 아니라, 지난날을 생각해도, **전쟁터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지키며 행할 때 죽음 속에서 살려주셨어요.**

전쟁 나가면 한 자리에서 150~200명이 죽는 것을 봤어요.

나도 해 안 받고, 나와 같이 있는 동료들도 해 받지 않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라. 네 옆 사람도 걱정하지 말라. 네가 있으니, 내가 지켜준다."** 하신 대로, 월남전 전우들도 지켜주셨다고 얘기해요. 섭리사 40년 동안 많은 어려움 있었으나 **시대 말씀을 듣고 행했기에, 극한 해는 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행해오신 것을 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안 듣고 나간 자들은 해를 받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 인 맞았기에 해를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장소에 가지 않게 틀어주시고, 말씀 주시고, 영감 주시고, 감동 주시고, 느낌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 대구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간 예식장에 우리 대구 교인이 예식을 했는데, 거기는 8~9층, 우리는 1~2층이라 엘리베이터 안 타고, 뷔페도 다른 식당이어서 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잡아주시는 것을 볼 때 감사해요. 인 맞은 자들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도 겪었는데, 기독교인들도 겪었을 것이고, 말씀 순종하고 잘하는 자들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낙으로 삼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 인 맞지 않은 자들은 어느 시대든지 그러하니라.

언제까지인가? 성경에 **다섯 달까지는 해 하라**, 나왔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다섯 달 동안 물이 안 빠졌어요. 홍수로 같이 고생했지만, 노아는 배 탔고, 다른 사람들은 물속에서 죽었죠.

지난번에 작아도 6개월짜리라고 말씀했죠.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해요.

◆ 신약인들은 구약인보다 예수님 중심해서 인 맞은 자,

새로운 역사의 사람들도 인 맞은 자,

선지자, 메시아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인 맞은 자,

성령의 감동 받고 행하는 자가 인 맞은 자, 뇌에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고 사는 자들이 인 맞은 자입니다.

◆ 구약, 신약에서나, 현재 계시받는 자들이 보면, 택한 자들은 꼭 표시해요.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표가 있습니다. 더욱 깨닫고 행하며 살기를 권해요.

◆ 계시록에 인 맞은 자를 보니,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무리이더라. 이 시대에 자기가 14만 4천, 인 맞았다고 하면 듣기 곤란하죠. 안 맞죠. 분별하고 알도록 내가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모두 깨닫고, 보고, 해야 합니다. **인 맞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해를 받을 때, 계속 고집부리고 불신하고 거짓말하면, 하나님은 시인할 때까지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해 주신 일들을 모두 감격,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만 번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부들을 철통같이 엄청나게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이대로 가면 조금은 괜찮지만, 결국은 걸린다. 그러면 전체에 해당되는 고통을 당한다. 지혜 없이 행하면 안 된다. **지혜있는 자가 되라.**" 고 하셨어요.

전부 성령과 세밀하게 의논해서 하는 것입니다.

◆ 신나게 말씀 지키며, 하나님께 감격하며 고마워하며 살고, 성령과 함께 행하도록 해요. 민족의 환난이 잦아들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피하게 지혜롭게 행하고, 더욱 긴장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자기 위치에서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말씀 듣고 지키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 생활 속에 자기를 더욱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회심하고 온전해 져야 합니다. **말씀을 항상 머리에 저장해서 그때마다 생각나서 행하도록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지켜, 인 맞은 자의 행실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 읽음							